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송 연 주

동의대학교

하 문 선†

공주교육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개입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아동기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 및 거절민감성을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465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거절민감성 척도, 관계중독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한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아동기 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고 내면화된 수치심은 거절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은 관계중독에, 거절민감성은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나,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효과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에 의해 연속적으로 다중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집단 동등성 검증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에 경험하는 외상이 관계중독에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아동기 외상은 수치심을 내면화시키고 이는 거절민감성을 야기함으로써 관계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제언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관계중독, 아동기 외상, 내면화된 수치심, 거절민감성, 중독

* 이 논문은 2017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1677).

† 교신저자 : 하문선, 공주교육대학교,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청목관 519호.

E-mail : moonsunha@gjue.ac.kr

최근 연인 간에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양상으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일부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적인 관계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하거나,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면서도 가해자를 두둔해가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종종 나타내곤 한다. 이러한 관계의 뒷면에는 그릇된 의존성이 있는데, 이는 관계 중독자들이 나타내는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관계중독(Relationship Addiction)이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되는, 말하자면 관계 그 자체나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게 보이는 중독적 양상을 의미한다(송연주, 2019b; 이상우, 2014).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은 점점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끊게 되면 심각한 금단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관계에 중독된 사람들 역시 의미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 비합리적일만큼 의존적이고, 관계에 내성이 생겨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관계가 끊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소원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집착하는 모습을 나타낸다(Whiteman & Petersen, 1998).

국내에서 사용되는 관계중독이라는 용어는 국외에서 사용되는 사랑중독(Love Addiction)과 다소 혼용되고 있지만, 국내 연구자 대부분은 관계중독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동의하고 있다(김미림, 정여주, 이도연, 윤서연, 김옥미, 2019). Whiteman과 Petersen(1998)은 관계중독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중독이라 일컬으며 사랑 중독, 사람중독, 성중독의 세 가지 하위유형으

로 구분하였고, Grant(1991)는 실제 관계뿐만 아니라 가상의 관계에도 중독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초기에는 사랑중독이 동반의존성(Codependency)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었으나, 동반의존성이 사랑중독이나 관계중독 그 이상의 의미로 상대방의 의존증 마저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는 함께 사용되지 않고 있다(Litchfield & Litchfield, 1992).

관계중독은 관계에 대한 결핍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관계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가령, 박준호, 이인규, 2018; 손승희, 2017; 송연주, 2019a).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경험한 학대나 방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감과 불안을 낳고 이는 자아의 성장을 방해한다. 이 때 형성된 뿌리 깊은 좌절감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데,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에게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애정과 보살핌의 욕구를 투영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관계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부모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즉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낀 이러한 부적절감이나 공허감을 평생 누군가로부터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면서 결국 관계에 중독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van der Kolk, 2005).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김희송, 이봉우, 최영식, 정규희, 2019), 이는 취약하고 무력한 존재인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김으로써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관계에 중독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아동기 외상은 아동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한성희,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희송 등(2019)의 연구에서 제시한 아동학대의 범주(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에 근거하여 어린 시절 부모나 주 양육자로부터 받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아동기 외상으로 보고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아동기 외상이 거절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변은실, 이주영, 2016; 홍상황, 박혜정, 2013; 황은수, 성영혜, 2006). 거절민감성이란 자신이 거부당하는 것을 쉽게 지각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처리 경향성으로,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인지적 취약성 중 하나이다(김후남, 정현희, 2018; Rudolph, 2009).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통해 거부당했거나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거절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거절로 지각하는 거절민감성을 형성시키게 된다(Downey & Feldman, 1994; 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특히 아동기 양육자로부터 경험하는 지속적인 거절이나 무시는 아동에게 거절 상황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을 일으켜 높은 거절민감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성인기 대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하수홍, 장문선, 2013; Feldman & Downey, 1994). 거절민감성이 높은 이들은 상대에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거절당하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받으려 하면서 집착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

한 거절민감성은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 집착적으로 매달리고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Levy, Ayduk, & Downey, 2001) 결국 관계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선미진, 2019; 최가연, 송연주, 2019).

종합해보면, 어린 시절 외상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절당하거나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한다. 이로 인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면서 관계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이 매개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아동기 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동기에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비난, 거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스스로를 부끄럽고 무가치하게 여기기 쉽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인식은 수치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개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는 정서가 바로 내면화된 수치심이다(Cook, 2001). 선행연구들은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하면 할수록 수치심을 점점 더 내면화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이태영, 심혜숙, 2011; 최은영, 안현의, 2011; Chan, Hess, Whelton, & Yonge, 2005; Webb, Heisler, Cal, Chickering, & Colburn, 2007).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결함이 많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부적절함, 공허감, 자기비난과 같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손승희, 2017).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외부

대상에 의존하여 자신의 불편감을 제거함으로써 수치심으로 인한 내면의 고통을 보상받으려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만성화된 자신의 고통이 관계를 통해 해결된다면 그 관계가 해가 된다 할지라도 몰두하려 하는 것이다(Cook, 2001). 이처럼 수치심으로부터의 느끼는 정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면서 점차 관계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몇몇 연구들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선미진, 2019; 손승희, 2017; 송연주, 2019a).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은 거절민감성을 야기할 수 있다. 수치심이 내면화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이는 상대가 자신을 거절할 것에 대한 민감성을 높게 된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고, 자기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수용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타인도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차혜련, 김종남, 2016; 최임정, 심혜숙, 2010). 즉 내면화된 수치심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거절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홍진이, 한기백, 2015).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거절민감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하거나 타인에 대한 높은 거절민감성으로 관계중독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상이 거절민감성을 더욱 높임으로 관계중

독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관계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대신 매개변인을 통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가령 외, 2018; 손승희, 2017; 최가연, 송연주, 2019), 이는 관계중독이 아동기 외상 그 자체보다 외상을 통해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에 따라 더욱 잘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면,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의 경로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게 됨으로써 관계중독 증상을 보이는 내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입 방안 마련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 아동기 외상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아동기 외상을 더 많이 경험하거나(신은정, 2018),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정서적 학대에는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심현진, 2013). 관계중독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관계중독을 보였으며(김은경, 2016; 박연주, 2008; 안명란, 홍혜영, 2016; 이수정, 2017), 내면화된 수치심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2016). 한편, 우상우(2014)는 관계중독을 설명하는 구조적 모형에서 남성은 환경적 요인인 청소년기 또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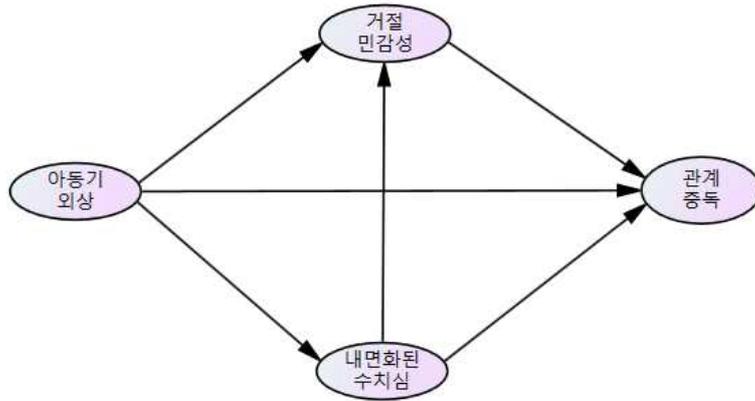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문제가, 여성은 심리내적 요인인 유기도식이 관계중독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관계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개별 측정 변인의 성별 차이만을 살펴보았거나 연구대상이 미혼이나 대학생에 한정된 경우(우상우, 2014)가 대다수이며, 아동기 외상 및 관계중독과 관련된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동기 외상 및 관계중독 관련 변인 간 구조적 관계에서 남녀 간 차이를 확인해 보는 연구는 관계중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더불어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아동기 외상, 내면화된 수치심, 거절민감성 및 관계중독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 거절민감성, 내면화된 수치심 및 관계중독 간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셋째, 아동기 외상, 거절민감성, 내면화된 수치심 및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전남,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총 465명이었으며, 이들은 해당 지역의 대학 강좌 수강생, 대학이 운영하는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 혹은 지역 주민 등에 해당한다. 설문을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자 및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설문지를 응답하는 동안 개인의 불유쾌한 경험이 상기되어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거나 정서적인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러한 절차를 고지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들에 한해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연구대상 중 남성은 211명(45.4%), 여성은 252명(54.2%)이었으며, 전체 대상의 연령은 20대(287명, 61.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들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생이 230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학생을 포함하여 없음(274명, 58.9%)이 있음보다 더 많았으며, 결혼여부는 미혼(350명, 75.3%)이 가

장 많았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아동기 외상

아동기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CTQ)를 이유허(2006)이 번안하고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 척도 단축형(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등의 정서적/신체적 학대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등 정서적/신체적 방임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각 요인별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아동기 학대나 방임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따라 “전혀 없음” 1점에서 “자주 있음”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김은정과 김진숙(2010)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90, 정서적/신체적 방임 .91, 전체 .89이었다.

관계중독

관계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Whiteman과 Peterson(1998)이 개발한 척도를 김인화(2004)가 번안한 관계중독척도(Relational Addic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등 관계 안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특징이 있는 사랑중독 7문항, ‘성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211	45.4
	여성	252	54.2
	결측	2	0.4
연령	18-19세	42	9.0
	20대	287	61.7
	30대	49	10.5
	40대	60	12.9
	50대 이상	20	4.3
	결측	7	1.5
최종학력	고졸	34	7.3
	전문대 재학	26	5.6
	4년제 재학	230	49.5
	대졸	118	25.4
	석사 재학 이상	54	11.6
	결측	3	0.6
직업여부	있음	191	41.1
	없음(학생포함)	274	58.9
결혼여부	미혼	350	75.3
	기혼	109	23.4
	결측	6	1.3

적으로 너무 문란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 등 성 관계를 사랑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성 중독 7문항, ‘누군가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면 그에게 끌린다.’ 등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목적을 위해 현재 관계 맺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중독 7문항, ‘내 속에는 현재의 감정적 고통을 다룰 자원이 없다.’ 등 관계중독에 영향 받기 쉬운 요소를 갖고 있는 정도 7문항의 총 4가지 하위요인, 2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계중독 성향의 수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김지연, 심혜원(201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사랑중독 .89, 성중독 .87, 사람중독 .88, 관계중독에 영향 받기 쉬운 요소를 갖고 있는 정도 .90, 전체 .88이었다.

내면화된 수치심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 (2001)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혜림(2005)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개 문항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한 방향으로만 응답하려는 경향성을 제어하기 위해 포함된 것으로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에서 가져온 것이다. 내면화된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측정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의 합계이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나는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등 부적절함 10문항, ‘나는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 등 공허 5문항, ‘나는 가끔 내 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느낌이다.’ 등 자기차별 5문항, ‘나는 내 결점이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날지 모른다

는 두려움이 있다.’ 등 실수 불안 4문항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인숙과 최혜림(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부적절함 .88, 공허 .90, 자기차별 .92, 실수 불안 .88, 전체 .89이었다.

거절민감성

거절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하고 이복동(2000)이 변안한 거절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거절민감성 척도는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거나 불안하다.’ 등 자신의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과 불안한 정도인 ‘거부 불안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등 자신의 요청이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여부인 ‘수용 기대’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성인초기 일상 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구 등 중요한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제안하는 상황을 총 18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점수는 거부 불안 점수와 수용 기대 점수를 곱한 점수의 총점을 전체 문항 수 18로 나눈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민감성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거부 불안 .93, 수용 기대 .92, 전체 .93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내면화된 수치심, 거절민감성 및 관계중독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먼저, 기초통계분석으로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값과 TLI, CFI, RMSEA 값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0.9 이상을 좋은 적합도로, RMSEA는 0.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08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 0.1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로 해석된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Tucker & Lewis, 1973). 이후 위계적 관계에 있는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중에서 최종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χ^2 값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고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의 양호도를 비교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처리를 위해 FIML(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이용하였다. FIML 방법은 일반적인 결측치를 갖는 모든 변수들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며 결측 발생유형에 영향을 받지 않아 결측값을 모형화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 의해 설정된 분석모형이 타당할 경우에 권장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Graham & Hofer, 2000).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이 제안한 Bootstrapping 절차를 따랐다. 이 방법은 원 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Bootstrapping 표본을 모수 추정하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한다. 간접효과의 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의 포함여부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개별 간접효과를 구하기 위하여 팬텀(phantom) 변인을 설정하여 Bootstrapping 절차를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이 두 개 이상일 때 Bootstrapping을 사용할 경우 전체 매개효과와 유의도만 제시하고 개별 매개에 대한 간접효과는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적합도나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팬텀(phantom) 변인을 설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 모형이 남아 집단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저모형,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인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및 각 경로 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경로동일성 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및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과 AMO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기초 통계

본 연구에서는 기초통계분석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모든 변인의 정상성을 확보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을 살펴보았다. 관측변수들의 상관분석 실시 결과(표 2), 모든 변수들은 대부분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모든 개별 변인들의 왜도는 2, 첨도는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West, Flinch, & Curran, 1995).

표 2. 관측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46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정서방임														
정서학대	.567**													
신체방임	.332**	.307**												
신체학대	.282**	.355**	.138*											
거부불안	.240**	.173**	.179**	.154*										
수용기대	.388**	.237**	.231**	.141*	.435**									
부적절감	.398**	.389**	.135*	.242**	.487**	.445**								
공허	.319**	.391**	.147*	.183**	.456**	.322**	.700**							
자기차별	.244**	.350**	.106	.226**	.448**	.341**	.609**	.723**						
실수불안	.354**	.406**	.111	.223**	.506**	.268**	.629**	.624**	.640**					
사랑중독	.238**	.319**	.139*	.087	.527**	.288**	.500**	.525**	.528**	.483**				
성중독	.042	.077	.076	.055	.323**	.081	.272**	.339**	.286**	.252**	.612**			
사람중독	-.035	.059	-.002	.027	.135*	-.078	.127*	.202**	.187**	.205**	.473**	.538**		
중독영향	.269**	.359**	.166**	.134*	.495**	.344**	.499**	.610**	.535**	.465**	.743**	.554**	.351**	
M	8.623	5.579	5.298	6.040	45.510	49.780	22.298	11.619	11.198	11.671	13.349	11.881	18.528	13.631
SD	3.834	1.957	1.583	1.464	15.166	12.416	7.166	4.251	3.626	3.056	5.102	4.316	4.670	5.290
왜도	1.040	1.291	1.361	1.645	.273	.347	.257	.190	.355	-.138	.332	.437	-.031	.325
첨도	.534	.922	1.389	2.305	-.433	-.052	-.510	-.669	-.396	-.479	-.549	-.369	.067	-.571

* $p < .05$, ** $p < .01$

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내면화된 수치심, 거절민감성 및 관계중독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이 $\chi^2(66, N=465)=216.848(p<.001)$, TLI=.932, CFI=.951, RMSEA=.070으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그러나 두 경로(아동기 외상→거절민감성, 아동기 외상→관계중독)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들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수정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수정모형의 검증 결과(표 3), $\chi^2(68, N=465)=217.294(p<.001)$,

TLI=.935, CFI=.951, RMSEA=.069의 값을 보여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정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하여 적합도가 유의하게 나빠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두 모형 간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3), χ^2 차이 값은 .466, 자유도의 차이값은 2로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TLI, CFI, RMSEA 역시 양호하게 나타나 더 간명한 모형인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의 각 경로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그림 2), 아동기 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596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면화된 수치심은 거

표 3.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CI)	χ^2 차이검증
연구모형	216.848	66	.932	.951	.070(.060-.081)	$\Delta\chi^2(2)=.446$
수정모형(최종모형)	217.294	68	.935	.951	.069(.059-.079)	

* $p<.05$, ** $p<.01$, *** $p<.001$

표 4. 연구모형의 경로추정치

경로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			
	B	β	S.E.	t
아동기 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897	.594	.094	9.512***
아동기 외상 → 거절민감성	.236	.048	.350	.675
내면화된 수치심 → 거절민감성	2.329	.709	.229	10.153***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중독	.539	.479	.093	5.770***
거절민감성 → 관계중독	.122	.358	.030	4.106***
아동기 외상 → 관계중독	.009	.005	.092	.099

* $p<.05$, ** $p<.01$, *** $p<.001$

N=465, B: 비표준화된 추정치, β : 표준화된 추정치, S.E.: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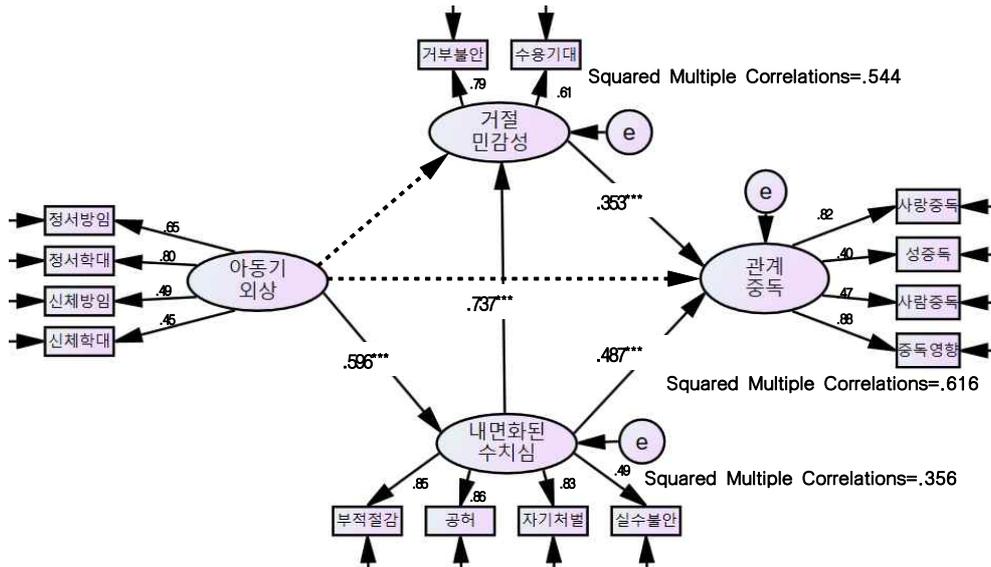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경로추정치

절민감성에 .73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관계중독에 .487, 거절민감성은 관계중독에 .35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생잠재변인이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양인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회귀분석에서 R²에 해당하는 값으로 그림 2에 표기하였다. 즉, 본 최종모형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분산 중 35.6%는 아동기 외상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거절민감성 분산 중 54.4%는 아동기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에 의해 설명되었고, 관계중독의 분산 중 61.6%는 아동기외상, 내면화된 수치심 및 거절민감성에 의해 설명되었다.

매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절차

(Shrout & Bolger, 2002)에 따라 추정하였다. 특히 아동기 외상(독립변인)과 관계중독(종속변인)의 관계에서 간접효과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의 포함여부를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매개변인)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별 간접매개효과를 구하기 위하여 팬텀(phantom) 변인을 설정하여 Bootstrapping 절차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5)는 AMOS 통계패키지의 결과에 따라 비표준화된 계수 값으로 제시하였다. 아동기 외상과 거절민감성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였고 ($B=2.205, p<.01$),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간접효과도 유의하였으며($B=.762, p<.01$),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중독 간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의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였다($B=.293, p<.01$). 특히 표 6과 같이,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효과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

표 5. 최종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기 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905**	-	.905**
아동기 외상 → 거절민감성	-	2.205**	2.205**
아동기 외상 → 관계중독	-	.762**	.762**
내면화된 수치심 → 거절민감성	2.436**	-	2.436**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중독	.548**	.293**	.841**
거절민감성 → 관계중독	.120**	-	.120**

* $p < .05$, ** $p < .01$, *** $p < .001$, $N=465$, Bootstrapping 표집의 개수는 10,000개

표 6. 개별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CI [하한, 상한]
아동기 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 거절민감성 → 관계중독	.265**	[.151, .471]
아동기 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중독	.496**	[.282, .677]

* $p < .05$, ** $p < .01$, *** $p < .001$, $N=465$, Bootstrapping 표집의 개수는 10,000개. 위의 수치는 비표준화 계수임.

절민감성에 의해 연속적으로 다중매개되거나 ($B=.265$, $p < .01$), 내면화된 수치심에 의해 단일 매개되는 것으로($B=.496$, $p < .01$)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유의하였다.

다집단 동등성 검증

최종모형이 남아 집단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과 같이 기저모형은 $\chi^2(136, N=465)=284.564(p < .001)$, $TLI=.934$, $CFI=.951$, $RMSEA=.049$ 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에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제약한 후 모형(측정동일성 제약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chi^2(146, N=465)=294.368(p < .001)$, $TLI=.939$

$CFI=.951$, $RMSEA=.047$ 로 역시 양호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차이값은 9.804, 자유도의 차이값은 10으로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TLI , CFI , $RMSEA$ 도 동일하거나 좋아져서 모형 간 동일성을 확보하였다. 각 집단 간 경로계수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각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경로동일성 제약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을 비교하였다. 표 7과 같이 두 모형 간 χ^2 차이값은 7.437, 자유도의 차이값은 4로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표 7. 다집단 동등성 검증

모형	χ^2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284.564	136		.934	.951	.049(.041-.057)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294.368	146	$\Delta\chi^2(10)=9.804$.939	.951	.047(.039-.055)
경로 동일성 제약모형	301.805	150	$\Delta\chi^2(4)=7.437$.939	.950	.047(.039-.054)

* $p < .05$, ** $p < .01$, *** $p < .001$

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모든 요인의 적제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경로동일성 제약모형: 각 경로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표 8. 모형의 집단별 모수 추정치

경로	남	여
아동기 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1.133(.597)***	.779(.580)***
내면화된 수치심 → 거절민감성	2.560(.723)***	2.410(.760)***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중독	.620(.554)***	.467(.476)**
거절민감성 → 관계중독	.090(.285)**	.186(.377)**

* $p < .05$, ** $p < .01$, *** $p < .001$. 주.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이며 괄호안의 수는 표준화 계수임

표 9. 모형 간 집단차이 비교

경로	df 변화량	χ^2 변화량	TLI 변화량
아동기 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1	3.853	.001
내면화된 수치심 → 거절민감성	1	.212	-.001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중독	1	.700	-.001
거절민감성 → 관계중독	1	2.454	.000
all constrained	4	7.436	.000

* $p < .05$, ** $p < .01$, *** $p < .001$

이지 않아 역시 모형 간 동일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 계수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Delta\chi^2(4, N=465)=$

7.436, $\Delta TLI=.000$).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최종모형이 성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최근 성인들의 관계중독 양상이 사회·문화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들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아동기 외상이 성인의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이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모형의 각 경로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아동기 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고 내면화된 수치심은 거절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은 관계중독에, 거절민감성은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할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거절민감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관계중독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하면 할수록 수치심을 점점 더 내면화하게 된다고 보고하였으며(손승희, 2017; 송연주, 2019a; Chan et al., 2005; Webb et al., 2007),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기에 타인에 대한 거절민감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차혜련, 김중남, 2016; 최임정, 심혜숙, 2010; 홍진이, 한기백, 2015) 본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고(손승희 2017; 송연주, 2019a),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관계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여(선미진,

2019; 최가연, 송연주, 2019)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손승희, 2017; 송연주, 2019a; Chan et al., 2005; Webb et al., 2007)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손승희, 2017; 송연주, 2019a)를 지지하며,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손승희, 2017)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관계중독 증상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기 외상은 그 자체로서의 경험보다 외상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내면화하게 됨으로써 관계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동기 주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열등감, 부적절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내면화하게 된다. 수치심이 내면화하게 되면 관계에서 주도적인 행동을 하기보다 타인의 요구에 맞추거나 자신의 부적절함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뜻에 따라 타인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이 관계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송연주, 2019a). 이들은 또한 만성화된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겪는 정서적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게 되면서 관계중독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손승희, 2017; 선미진, 2019). 따라서 아동기에 경험한

외상으로 인해 관계중독적 증상을 보이는 내담자를 상담할 시, 우선적으로 자신에 대해 어떠한 상을 가지고 있는 지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약 아동기 외상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적절함, 공허감, 자기 비난 등의 수치심이 내면화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상 경험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외상을 경험함으로써 갖게 된 자신에 대한 왜곡된 사고나 감정은 상담이나 치료적 장면 혹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로서 관계중독적 특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아동기 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을 이중매개로 하여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거절민감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차혜련, 김종남, 2016; 최임정, 심혜숙, 2010; 홍진이, 한기백, 2015)를 지지하는 것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은 관계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거절민감성을 통해 관계에서 중독적인 양상을 드러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스로가 부적절하다거나 무가치하다는 수치심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되면 자신을 거부하고 불신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불신이나 거부하는 타인의 의도를 왜곡하여 지각하게 하기 쉽고, 이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을 거절한다고 지각하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타인으로부터 거절을 경험하게 되면 수치심을 재차 확인해야 하는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더욱 노력하면서 거절민감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차혜련, 김종남, 2016).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자기주장이 어렵게 되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순응적이거나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쉽다. 거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기에 대한 강한 수치심으로 타인이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게 되면 거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관계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중독적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관계중독적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다루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의 거절민감성 수준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더불어 거절민감성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 특성이기에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아동기 외상과 거절민감성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완전매개를 나타냈다. 추후 지속적인 연구들을 통해 이를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겠지만,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이들의 거절민감성을 다뤄주기 위해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제시한다. 아동기 외상을 경험함으로써 거절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발달상에서 손상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봄으로써 중독적인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기 외상, 내면화된 수치심, 거절민감성 및 관계중독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다집단 동등성 검증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

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거절민감성과 관계중독 각각에 영향을 미치며, 거절민감성이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며 결국, 본 연구의 최종모형이 성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 중 우상우(2014)는 관계중독을 설명하는 모형 검증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환경적 요인인 청소년기 또래관계문제가, 여성의 경우 심리내적 요인인 유기도식이 관계중독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관계중독에 관한 구조 모형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정 부분 상이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관계중독을 설명하는 구조적 모형의 성차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의 다집단 동등성 검증 결과는 초기에 경험된 아동기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관계중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성차에 따른 차이가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기 외상으로 인해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남녀를 상담하고 심리적 개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원인으로 아동기 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내면화된 수치심 혹은 거절된 민감성을 감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성별차이 없이 동일하게 개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관계중독의 원인을 탐색하고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성차와 관련없이 동일한 접근이 가능함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경험한 외상과 그 경험의 처리 과정이 성인기 대인관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거에 비해 아동 학대나 방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

실이나,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여전히 이를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으며, 아동학대나 폭력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데 더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어(김희송 외, 2019) 아동기 외상의 심각성에 더욱 주목해야 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이 성인의 관계중독에 이르는 경로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역할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을 발생시키는 경로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 간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각각의 관계만을 보고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손승희, 2017; 최가연, 송연주, 2019)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관계중독을 위한 치료 및 중재의 상황에서는 개인이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으로 거절민감성을 나타낸다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왜곡된 사고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적 장면에서는 무엇보다 아동기에 형성된 결핍의 욕구를 지금 현재 중요한 타인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신을 보다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방향으로의 중재가 제공된다면 관계중독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적 성향에 근거한 관계중심적 문화로, 헌신이나 배려가 미덕으로 여겨져 관계중독에 대한 위험은 분명 높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못한 편이다. 사람에게 중독되는 양상이나 과정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또한 관계중독은 쇼핑이나 도박, 스마트폰과 같은 과정중독으로서 물질중독에 비해 더욱 쉽게 빠져들 수 있지만, 외부의 도움 없이는 변화 역시 매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연주, 2019b). 더군다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 범죄가 관계중독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이윤연, 장현아, 2017),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사이버 관계중독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김택호, 정형화, 2018).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병리적 이성관계나 이성문제에 대한 치료 및 개입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관계중독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밝은 관계문화 형성을 위해서도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계중독을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기에 응답자의 반응에 있어 불성실성이나 응답의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대 미혼 성인이 다소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추후 보다 확장된 대상을 통해 관계중독을 살펴본다면 관계중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기 외상 경험이나 관계중독 증상의 정도가 다소 높은 임상집단군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본 모형을 검증하는 작업도 필

요할 것이며,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계중독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중독과 성중독의 경우 다른 변인들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따라서 관계중독의 개념과 그 구성요인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개념을 문화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가령, 박준호, 이인규 (2018). 아동기 대인의 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 1051-1073.
- 김미림, 정여주, 이도연, 윤서연, 김옥미 (2019). 관계중독 개념 도출 델파이 연구. *열린교육연구*, 27(3), 199-218.
- 김은경 (2016).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지연, 심혜원 (2016). 불안정 성인애착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2), 73-100.
- 김택호, 정형화 (2018).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이버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교정담론*, 12(3), 103-126.
- 김후남, 정현희 (2018). 청소년의 초기 외상 경험과 우울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 위축, 대인관계 문제의 순차적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8(3), 247-265.
- 김희송, 이봉우, 최영식, 정규희 (2019). 범의부검자료를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사망의 현황과 유형. 형사정책연구, 30(1), 229-263.
- 박연주 (2008). 성인의 애착과 낮은 자존감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은실, 이주영 (2016).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25-1149.
- 선미진 (2019).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중독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 (2017).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43-763.
- 송연주 (2019a).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기 관계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9(9), 939-959.
- 송연주 (2019b). 관계중독에 대한 개념 및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7(4), 699-721.
- 신은정 (2018). 대학생의 아동기 대인 간 외상경험이 자기체계손상에 미치는 영향: 정서기능과 다차원적 경험회피의 이중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현진 (2013).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의 사회불안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명란, 홍혜영 (2016).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통합치료연구, 8(1), 75-100.
- 우상우 (2014). 관계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이론적 모형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2017).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거절민감성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연, 장현아 (2017). 아동기 외상과 테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191-209.
- 이인숙, 최혜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태영, 심혜숙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6), 2273-2291.
- 차혜련, 김종남 (2016).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및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12), 373-401.
- 최가연, 송연주 (2019).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절민

- 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4), 853-870.
- 최은영, 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02.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하수홍, 장문선 (2013). 정서적 학대 경험과 관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 한성희 (2002). 아동기 외상의 정신과적 개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3(1), 3-14.
- 홍상환, 박혜정 (2013).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의 관계에서 거부불안 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4(2), 59-7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진이, 한기백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5), 367-389.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자기인식정서와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9(3), 67-84.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rnstein, D. P., & Flink, L. (1996).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han, M. A., Hess, G. C., Whelton, W. J., & Yonge, O. J. (2005). A comparison between female psychiatric outpatients with BPD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erms of trauma, internalized shame and psychiatric symptomatology. *Traumatology*, 11(1), 23-40.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i Health System Inc.
- Downey, G., & Feldman, S.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Lebolt, A., Rinco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of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Graham, J. W., & Hofer, S. M. (2000). Multiple imputation in multivariate research. NJ:

- Mahwah.
- Grant, M. (1991). *When Good Things Become Addictions*. Victor Books. 임근석 역 (1994).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 Litchfield, B., & Litchfield, N. (1992). *Christian Counseling & Family Therapy*. 정동섭, 정성준 역 (2002). *가족과 가족치료(제4권)*. 서울: 예수전도단.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Leary, MR,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251-28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dolph, K. D. (2009). The interpersonal context of adolescent depression. In S. Nolen-Hoeksema and L. M. Hilt (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pp. 377-418). New York: Routledge.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ucker, L. R., & Lewis, C. A. (1973).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van der Kolk, B. A. (2005). Developmental Trauma Disorder: Toward a rational diagnosis for children with complex trauma histories. *Psychiatric Annals*, 35(5), 401-408.
- Webb, M., Heisler, D., Call, S., Chickering, S. A., & Colburn, T. A. (2007). Shame, guilt, symptoms of depression and reported history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Neglect*, 31(11-12), 1143-1153.
- West, S. G., Fl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Sage.
- Whiteman, T., & Petersen, R. (1998). Victim of love?: How you can break up the cycle of bad relationships. 김인화 역 (2004).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서울: 사랑플러스.

논문 투고일 : 2020. 03. 11

1 차 심사일 : 2020. 03. 24

게재 확정일 : 2020. 05. 27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Song, Yeon-Joo

Dong-eui University

Ha, Moon-Su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test a hypothetical model about impact of childhood trauma on Relationship Addiction of Korean adults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ed shame. A purposive sample of 465 Korean adults was recruited from three provincial areas. The collected data were then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program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performed. Multiple mediating effects analysis using phantom variable and bootstrapping were implemen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search model. We found no significant direct effect of childhood trauma on relationship addiction, but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on Relationship Addiction were successively multi-mediated by internalized shame and rejection sensitivity ($B=.265$, $p<.01$), and single-mediated by internalized shame ($B=.496$, $p<.0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suggested that in order to prevent relationship addiction of adults, it is necessary to first explore whether he has experienced childhood trauma and thereby has not only internalized shame but also rejection sensitivity.

Key words : Relationship Addiction, Childhood trauma, Internalized shame, Rejection sensitivity, Addiction